

한국판 이주자 부모 스트레스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mmigrant Parental Stress Inventory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조교수 유선영

Department of Multicultural Studies,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Yoo, Sun-Young

〈목 차〉

I. 서론	IV. 결과
II. 선행연구 고찰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Unlike daily hassles or minor stressors, immigration is an intense life event that may cause excessive stress. In particular, immigrant parents find themselves in a more stressful situation in that they experience stresses caused by immigration and stresses caused by parenting at the same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validate an Immigrant Parental Stress Inventory (IPSI), that objectively and comprehensively assesses the stress experienced by immigrant parents within the Korean context.

Based on the Immigrant Parental Stress Inventory developed within the American context, preliminary items were refin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the discussions of experts and immigrant parents and were empirically validated with a sample of 203 immigrant parents residing in Korea.

Through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ix main factors were identified (Factor1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Factor2 Financial difficulties, Factor3 Difficulties in social adjustment, Factor4 Social discrimination, Factor5 Lack of social resources, Factor6 Difficulties in parenting). The IPSI was shown to be a psychometrically sound instrument that is capable of measuring immigrant parental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8024314)

** 주저자, 교신저자 : 유선영(syyoo@gwnu.ac.kr)

stress within the Korean context. Social service professionals and researchers studying or working with immigrant families could use the IPSI to examine immigrant parental stress.

Key Words : Immigrant Parents(이주자 부모), Parental Stress(부모 스트레스), Scale Development(척도 개발), Validity(타당도)

I. 서론

2014년 9월 현재 한국 체류 이주민의 수는 약 170만 명이며,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10%가 이주민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법무부, 2014). “이주의 시대”라는 말처럼 이제 이주는 보편적인 사회현상이 되었다. 이주자이면서 부모인 경우 자신이 이주자로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재사회화되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주자 부모는 문화적, 언어적 맥락이 다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함과 동시에 부모로서의 양육 스트레스를 동시에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Berry, 2001; Berry, Kim, Minde, & Mok, 1987). 이러한 부모로서, 이주자로서 겪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우울과 불안 같은 정신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ovey & Magana, 2002; 이인선, 2004; 한인영, 2001). 이주자의 부모 스트레스는 또한 이주자가족의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지명, 이상균, 2013; 이지영, 2012).

이주자 부모의 경우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문화와 언어적 배경 속에서 성장해 왔고 이는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그들 나름의 가치, 신념, 양육방식 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국의 문화와 가치 등은 한국사회에서 자녀를 양육

하면서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고 이주자의 자녀양육을 보다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김승희, 2011; 양승민, 연문희, 2009; 윤명숙, 이해경, 2011; 강현숙, 2009; 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 2008). 또한 한국사회에서 성장하는 자녀의 경우 한국의 주류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반면 이주자의 경우 성인이 되어 이주했기 때문에 자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함께 가지고 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이주자 부모와 자녀의 문화적응의 격차는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이주자 부모의 스트레스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Ying & Tracy, 2004; Tseng & Fuglini, 2000; Berry, Phinney, Sam, & Vedder, 2006).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자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난민, 유학생 등 다양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나 한국생활 적응의 어려움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다문화가족 자녀의 적응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고 자녀의 적응문제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주자가 부모로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필요는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복지서비스는 2006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었으나 2009년 조사에서는 자녀 양육·학습지원으로 나타났다(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이해경, 설동훈, 정기선, 심인선, 2010). 이는 초기 정착 이후에 체류기간이 증가하면서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 적응의 욕구에서 자녀 관련 욕구로 그 욕구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주자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가족 및 생활 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연구가 있으나 이들 연구에서는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Sandhu & Asrabadi, 1994),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McCubbin & Patterson, 1983), Parenting Stress Index (Abidin, 1990)와 같은 외국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박민희와 양숙자(2012)의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종합적인 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나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주자 부모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외국의 경우 이주자 부모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척도가 국내에 비해서 비교적 많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척도가 미국 거주 히스패닉, 구소련 출신, 아시아 이주자 등 특정 지역의 이주자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으며, 이 척도가 개발된 사회·문화적 맥락이 한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한국 거주 이주자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북미의 경우 국가의 구성 자체가 이민으로 구성되었고 다인종,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비교적 단일한 언어와 문화로 구성된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

라서 한국거주 이주민의 이주자로서의 경험과 부모로서의 경험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주자 부모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검증된 도구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1.** 한국 거주 이주자 부모가 경험하는 이주자 부모 스트레스의 구성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2.** 이주자 부모 스트레스 척도의 요인 구조는 적절한가?
- 연구문제3.** 이주자 부모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어떠한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이주자 부모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Immigrant Parental Stress Inventory (IPSI)²⁾ (Yoo & Vonk, 2012)를 기본으로 문헌고찰과 한국 거주 이주자 부모 인터뷰,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한국 거주 이주자 부모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재구성하였고 일부 문항들을 수정하여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자 부모들을 대상으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1) Hispanic Stress Inventory Immigrant version (Cervantes, Padilla, & Salgado de Snyder, 1990), Demand of Immigration Distress (Aroian, Norris, Tran, & Schappler-Morris, 1998), Southeast Asian Parenting Stress Scale (SAPSS) (Hayashino, 2003), Immigration Stress Checklist (ISC) (Levitt, Lane, & Levitt, 2005), Abbreviated HSI-I (Cavazos-Rehg, Zayas, Walker, & Fisher, 2006)

2) Immigrant Parental Stress Inventory(IPSI, Yoo & Vonk, 2012)는 이주자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다양한 척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문화적응, 부모자녀의 문화적 적응 차이로 인한 어려움, 이주로 인한 어려움 등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이주자 부모 스트레스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달리 이주는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사건이다.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주자들은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경험한다(Berry, 1997; Berry, 2001). 이와 더불어 이주자이면서 부모인 경우 이주로 인한 스트레스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동시에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주자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국외 문헌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문화적응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두 번째는 차별이나 편견으로 인한 스트레스, 세 번째는 이주자 부모와 그들 자녀간의 문화적응의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나누어진다. 먼저 문화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이주자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 문화적 변화, 기존의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언어적, 종교적, 사회적 기관의 변화, 새로운 사회적 관계, 심리적 변화 등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한다(Berry, 1997; Berry, 2001; Berry, Kim, Minde, & Mok, 1987; Levitt, Lane, & Levitt, 2005).

이주자 부모가 경험하는 또 다른 스트레스는 인종주의나 차별 경험과 관련된데(Kessler, Mickelson, & Williams, 1999; Liebkind, 1996). 기존 연구들은 인지된 차별이 이주자의 심리적인 어려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Liebkind & Jasinskaja-Lahti, 2000; Lee, 2003; Moradi & Risco, 2006). Berry(2005)는 이주로 인해 야기된 문화적 다양성이 주류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이주자들은 적대감, 거절, 편견, 차별들을

더 많이 경험하며 이는 이주자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주자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화적응 격차는 이주자 부모의 스트레스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주자 부모의 경우 그들 본국의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큰 반면 그들의 자녀는 새롭게 정착한 곳의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인다(Ying & Tracy, 2004). 언어에 있어서도 이주자 자녀들의 경우 그들의 부모보다 더 빠르게 습득한다(Tseng & Fuglini, 2000). 이러한 문화적응의 격차는 이주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인지된 부모자녀 간의 문화적응의 격차는 부모자녀 관계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Dinh & Nguyen, 2006).

이주자 부모의 경우 이러한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나 자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이주자 부모가 그들에게 익숙한 사회시스템을 떠나서 새로 정착한 곳의 사회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스트레스원은 이주 경험이 없는 부모보다 복합적인데 비해 이를 다룰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이주자 부모의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2. 이주자 부모 스트레스 관련 척도

이주자 부모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해외에서 다양한 척도들이 개발되었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척도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양육 스트레스로 국한되지 않고, 이주자가 놓여 있는 다양한 맥락에서 경험되는 종합적인 스트레스(가족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인종차별이나 편견과 관련된 스트레스, 문화적응과 관련된 스트레스, 이주자 부모와 자녀간의 문화적응 차이에 의한 스트레스 등)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히스패닉, 아시안, 구소련 출신,

〈표 1〉 이주자 부모스트레스 관련 척도

척도	대상	내용
Hispanic Stress Inventory Immigrant version (Cervantes, Padilla, & Salgado de Snyder, 1990)	미국 거주 히스패닉 출신 이주자	5개 하위요인 - Occupational/Economic stress - Parental stress - Marital stress - Immigration stress - Cultural/Family stress
Demand of Immigration Specific Distress Scale (Aroian, Norris, Tran, & Schappler-Morris, 1998)	미국 거주 구소련 출신 이주자	6개 하위요인 - Loss - Novelty - Occupational adjustment - Language accommodation - Discrimination - Alienation
Southeast Asian Parenting Stress Scale (SAPSS) (Hayashino, 2003)	동남아시아 난민과 이주자 부모	2개 하위요인 - SAPSS-Beliefs/Perception - SAPAA-Stress
Immigration Stress Checklist(ISC) (Levitt, Lane, & Levitt, 2005)	이주자 부모와 자녀	5개 하위요인 - Social disruption - Experiences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 Adjusting to new circumstances - Difficulties being understood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 Family issues
Abbreviated HSI-I (Cavazos-Rehg, Zayas, Walker, & Fisher, 2006)	미국 거주 히스패닉 출신 이주자	2개 하위요인 - Intrafamilial stress - Extrafamilial stress
Immigrant Parental Stress Inventory (IPSI) (Yoo & Vonk, 2012)	미국 거주 한국 출신 이주자 부모	2개 하위요인 - Immigrant Life Stress - Parent-Child Acculturative Gap Stress

한국인 등 이주자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이주자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부모 스트레스, 가족 스트레스, 일상생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되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경우 많은 연구에서 Sandhu와 Asrabadi(1994)의 ASSIS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Abidin(1990)의 PSI(Parenting Stress Index), 부모 스트레스와 가

족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경우는 McCubbin와 Patterson(1983)의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이 사용되었다. 국내 연구에서 사용된 이들 척도를 살펴보면 이주자 부모를 위해 개발된 척도는 없으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척도이거나 이주 경험이 없는 가족이나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되어진 척도임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이주자 부모와 관련하여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손의성, 2012)와 한국생활 적응 측정도구(현경자, 김연수, 2011)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 두 척도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이거나 한국사회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모로서 부모자녀 관계에서 경험되는 스트레스는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이주자 개인의 적응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한정하여 한국 거주 이주자가 부모로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박민희와 양숙자(2012)가 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측정도구의 경우 21개 문항, 4개 요인, 가족경제 스트레스 요인, 양육 및 차별 스트레스 요인, 문화 스트레스 요인, 정서 스트레스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경우 부모자녀 관계를 포함하여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비교적 다양한 스트레스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표 2〉 기존 척도(IPS, Yoo & Vonk, 2012) 재구성 내용

구분	문 항	
수정 (9문항)	1. 나의 서툰 영어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낀다. (수정)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한국어로 잘 표현하지 못할 때 답답함을 느낀다.	
	4. 부모의 역할에 대한 나의 신념이 이 나라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느낀다. (수정)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부모역할에 대한 생각과 한국에서의 부모역할이 서로 달라 혼란스럽다.	
	5.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이나 기술이 이 나라에선 더 이상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쓸모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수정)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이나 기술을 한국에서 사용할 수 없어서 좌절감을 느낀다.	
	6.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아이와 깊이 있게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 (수정) 한국어가 서툴러서 아이와 깊이 있게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	
	9. 이 나라의 교육시스템을 잘 모른다는 점에서 나는 다른 부모들에 비해 열등하다고 느낀다. (수정)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녀양육이나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11. 내 아이와 문제가 있을 때 어디서 또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 (수정) 내 아이와 문제가 있을 때 어디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	
	17. 고국에서 가졌던 이전의 사회적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느낀다. (수정) 고국에서 가졌던 사회적 위치가 한국에 오면서 낮아졌다고 느낀다.	
	25. 관공서나 서비스기관에서 일반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수정) 관공서나 은행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26.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이유로 아이의 숙제를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다. (수정)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이유로 아이의 학습이나 숙제를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다.	
	삭제 (8문항)	12. 내 자녀의 문화적 가치관이 나의 문화적 가치관과 충돌한다.
		14. 내 아이는 내가 전통적인 가치관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고 불평한다.
18. 이민자로서의 삶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22. 내 자녀와 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역할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다.		
31. 내 아이는 내가 너무 보수적이라고 불평을 한다.		
33. 이민자로서의 나의 희생적인 삶의 대가로서 내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추가 (2문항)	34. 보험이 없어서 가족들이 아플까 봐 걱정이 된다.	
	35. 이민자로서의 삶이 자녀와의 관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내 아이가 차별을 겪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	

러나 결혼이주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보다 다양한 이주자 부모, 예를 들면 노동이주나 교육이주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이주한 부모에게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을 메우고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자 부모가 이주자로서 부모로서 경험하는 종합적인 스트레스를 파악할 수 있는 이주자 부모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문항개발

본 척도는 Yoo와 Vonk(2012)가 개발한 Immigrant Parental Stress Inventory (IPSI)에 기초하여 문헌고찰, 한국 거주 이주자 부모 인터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 거주 이주자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로 재구성하였다. 예비문항은 총 27개로 기존 척도와 동일하게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고(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

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의미이다. 기존 척도를 어떻게 재구성하였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2. 설문조사

조사를 위해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자 부모를 표적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이주하였으며, 자녀가 있는 이주자 부모로 연구 참여자를 한정하고, 조사가 가능한 기관을 편의표집 하였다.

2014년 9월~10월까지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다문화중점초등학교, 외국인학교의 이주자 부모 총 217명을 조사하였으며,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14명을 제외하고 총 203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는 (1)예비문항 개발, (2)내용타당도 검토, (3)조사 실시, (4)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척도개발 과정은 <표 3>과 같다.

<표 3> 척도 개발 과정

연구 단계	내용
1단계 예비문항 개발	- 문헌고찰 - 한국 거주 이주자 부모 인터뷰 한국에서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한 기간이 만5년 이상이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인터뷰 가능한 이주자 부모 4인에게 기존 척도를 제시하고 이주자 부모 스트레스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질문함 - 문헌고찰과 이주자 부모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여 Immigrant Parental Stress Inventory (IPSI) 문항을 재구성함
2단계 내용타당도 검토	사회복지학 박사 2인, 이주자 관련 서비스 기관 실무자 3인의 전문가에게 재구성된 척도를 제시하고 이주자 부모 스트레스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의견을 묻고 이를 반영하여 예비문항을 수정, 보완함 (표2 참조)
3단계 조사	서울, 경기, 강원 지역 217명의 이주자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
4단계 신뢰도 타당도 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개발된 척도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타당도 검증

3. 분석방법

SPSS 19.0 Program을 활용하여 먼저 문항 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요인 구조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추출 방법은 common factor analysis 방법을, 요인의 회전은 Direct Oblimin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확인된 6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AMOS 7.0 Program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4> 및 <표 5>와 같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의 국적을 보면 중국(조선족 포함)이 111명으로 전체 유효 응답자의 61.33%를 차지하였다. 응답자들의 성별을 보면 남자(33명, 17.37%)에 비해 여자(157명, 82.63%)가 많았으며, 이들의 연령은 최소 23세에서 최대 56세까지 평균 38.85세로 나타난 가운데 40대와 30대가 각각 84명(41.79%)과 79명(39.30%)으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의 학력은 고등학교(74명, 42.29%)와 대학교(67명, 38.29%)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고, 종교는 기독교(45명, 22.73%), 불교(34명, 17.17%), 천주교(21명, 10.61%), 기타(10명, 5.05%)의 순이었고, 종교가 없는 응답자도 전체의 44.44%에 해당하는 88명이었다.

응답자의 대부분(157명, 86.74%)이 현재 배우자가 있었으며, 응답자들은 현재 상당수(91명, 55.49%)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형태의 임금노동자로 재직하였으나, 가정주부를 포함한 무직인 상태 역시 전체

의 31.71%(52명)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또한, 이들의 월평균소득은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60명, 30.46%),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49명, 24.87%),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37명, 18.78%) 등의 구간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다. 한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현재 서울에 가장 많은 113명(57.36%)이 거주하고 있었고, 경기(45명, 22.84%)와 강원(31명, 15.74%)이 뒤를 잇고 있었다. 이들이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가장 많은 결혼(108명, 55.67%) 외에도 취업(24명, 12.37%)과 친척방문(16명, 8.25%), 유학(15명, 7.73%) 등이었는데,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기타(19명, 9.79%)의 응답도 일부 나타나고 있었다. 응답자들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12개월(51년)까지 평균 106.30개월(약 8년 10개월) 남짓이었는데, 10년 이상(72명, 40.45%)과 5년 이상 10년 미만(69명, 38.76%)의 장기 거주자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2. 결측치의 보정

사회조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개체 무응답(unit non-response)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허명희, 2009). 그런데 데이터의 통계분석에서는 사각행렬(Rectangular matrix)의 구조 내에서 모든 값이 전부 관측된 경우를 가정하므로(안형진, 2008), 사각행렬 내에서 하나라도 결측치가 존재한다면 해당 사례는 제외 시키게 되기에 통계분석에서 상당한 자료손실이 불가피하게 된다(허명희, 2009). 결국 이는 곧 연구결과의 대표성을 치우치게 할 우려(Rubin & Babbie, 2008)가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을 통해 보정할 필요가 있다.

결측치를 보정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최대우도방법을 적용하여 반복적인 모수추정과정을 거쳐 결측치를 추정하는 방법(Little & Rubin, 2002)인 기대최대화(Expectation- Maximization, EM) 추정방식에 의해 결측치 분석을 선행하였다.

〈표 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국적	중국(조선족 포함)	111	61.33	직업	무직(주부 포함)	52	31.71	
	베트남	14	7.73		임금노동자(정규/비정규)	91	55.49	
	필리핀	24	13.26		자영업자	11	6.71	
	일본	11	6.08		학생	2	1.22	
	대만	5	2.76		기타	8	4.88	
	몽골	5	2.76	월평균 소득	50만원미만	3	1.52	
	태국	5	2.76		50~100만원미만	10	5.08	
	캄보디아	1	0.55		100~200만원미만	49	24.87	
	우즈베키스탄	2	1.10		200~300만원미만	60	30.46	
	러시아	1	0.55		300~400만원미만	37	18.78	
기타	2	1.10	400~500만원미만		22	11.17		
			500~600만원미만		3	1.52		
성별	남	33	17.37	600~700만원미만	5	2.54		
	여	157	82.63	700만원이상	8	4.06		
연령대	20대	24	11.94	거주 지역	서울	113	57.36	
	30대	79	39.30		인천	6	3.05	
	40대	84	41.79		경기	45	22.84	
	50대	14	6.97		강원	31	15.74	
			충남		1	0.51		
학력 수준	초등학교	3	1.71	경남	1	0.51		
	중학교	15	8.57	방한 목적	결혼	108	55.67	
	고등학교	74	42.29		취업	24	12.37	
	대학교	67	38.29		친척방문	16	8.25	
	대학원	16	9.14		사업 또는 업무	12	6.19	
			유학		15	7.73		
종교	기독교	45	22.73		기타	19	9.79	
	천주교	21	10.61		거주 기간	6개월미만	2	1.12
	불교	34	17.17			6개월~1년미만	1	0.56
	종교없음	88	44.44			1년~3년미만	15	8.43
	기타	10	5.05			3년~5년미만	19	10.67
			5년~10년미만	69		38.76		
			10년이상	72		40.45		
결혼 상태	배우자있음	157	86.74					
	사별	6	3.31					
	별거	3	1.66					
	이혼	15	8.29					

※N=203이며, 각 사항별 무응답은 제외함.

〈표 5〉 응답자의 연령 및 한국 거주기간 기술통계

	빈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연령(세)	201	23	56	38.85	7.20
거주기간(월)	178	3	612	106.30	68.95

※N=203이며, 각 사항별 무응답은 제외함.

3. 문항분석과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먼저 Cronbach's α 계수와 문항 제거시 신뢰도(Alpha if item deleted)를 검토함으로써 문항의 신뢰도를 파악하고, 각 개별 지표와 그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로 구성된 척도와 의 상관관계(노형진, 2005)를 검토하고자 수정된 항목과 전체의 상관관계(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 CITC)를 선(先) 검토하였다. 만일 CITC가 낮다면 해당 항목은 다른 항목과 상관성을 보이지 못하므로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이중환, 2014).

본 연구에서의 척도 초안은 총 27개의 리커트 척도 항목이며, 이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0.945였고, 각 문항제거시 신뢰도의 변화 측면에서도 특별하게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척도의 신뢰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CITC 역시 기준치라 할 수 있는 0.30(이중환, 2014)에 미달되는 항목이 관찰되지 않았다.

4. 이주자 부모스트레스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에 대한 검토 후 무작위로 선정한 50%의 사례로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여 잠재요인을 추출하였다. 먼저 표본적합도(Measure of Sampling Adequacy, MSA)³⁾는 0.898로써 '꽤 높은 수준(Meritorious)'로 나타났고,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Bartlett's Test of Sphericity)에서는

유의수준 0.05에서 측정변수간의 상관성이 인정되었으므로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요인의 추출이 유의미하다.

각 개별 항목의 표본적합도(MSA)는 전반적으로 0.80 이상의 꽤 높은 수준(Meritorious)을 보였고, 공통성(Communality) 역시 모두 기준인 0.40을 초과하고 있었다. 또한, 요인이 해당 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에서도 기준인 0.40에 미달하는 사항이 없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본 과정에서 제거가 필요한 항목은 없다고 판단된다.

요인의 수는 선행연구, eigenvalue, scree plot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eigenvalue가 1.0 이상이고 scree plot의 eigenvalue가 급격하게 감소한 지점을 고려하여 요인 수를 6개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1요인은 '소통의 어려움', 2요인은 '경제적 어려움', 3요인은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 4요인은 '사회적 차별', 5요인은 '사회적 자원의 부족', 6요인은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이름 붙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었다.

5. 이주자 부모스트레스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추출된 6개의 잠재요인에 각각 개별 지표가 얼마나 타당하게 수렴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나머지 절반의 사례로는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우선 모형 적합도를 검토하였는데, 본 모형에서는 χ^2 를 비롯하여 여러 수치들이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였다.

3) 표본적합도를 이용하면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와의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으며, 이 수치가 일정기준 이하로 나타나는 것은 수렴적 타당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반적인 표본적합도와 함께 각 세부항목의 표본적합도를 검토하면 개별 지표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이중환, 2014). 표본적합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는데, 0.90이상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값(Marvelous), 0.80이상~0.90미만은 꽤 높은 수준(Meritorious), 0.70이상~0.80미만은 괜찮다고 할 수 있는 수준(Middling), 0.60이상~0.70미만은 보통 수준(Mediocre), 0.50이상~0.60미만은 빈약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수준(Miserable), 0.40이상~0.50미만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Unacceptable)으로 해석한다(이영준, 2002).

〈표 6〉 CITC 및 문항 제거시 신뢰도(Alpha if item deleted) 검정 결과

항목	CITC	제거시 신뢰도
01)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한국어로 잘 표현하지 못할 때 답답함을 느낀다.	0.519	0.944
02) 부모님이나 친척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아이를 기르는 것이 어렵다.	0.641	0.943
03)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부모역할에 대한 생각과 한국에서의 부모역할이 서로 달라 혼란스럽다.	0.717	0.942
04)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이나 기술을 한국에서 사용할 수 없어서 좌절감을 느낀다.	0.606	0.943
05) 한국어가 서툴러서 아이와 깊이 있게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	0.696	0.942
06)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이 없다.	0.575	0.943
07)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녀양육이나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0.668	0.942
08) 내 아이가 나를 부모로서 존경하지 않는 것 같다.	0.577	0.943
09) 내 아이와 문제가 있을 때 어디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	0.667	0.942
10) 타국에서 사는 삶 때문에 외롭고 고립되었다고 느낀다.	0.637	0.943
11) 내 자녀의 선생님이나 다른 부모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렵다.	0.661	0.942
12) 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한다.	0.586	0.943
13) 고국에서 가졌던 사회적 위치가 한국에 오면서 낮아졌다고 느낀다.	0.573	0.943
14) 열심히 일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항상 어렵다.	0.629	0.943
15) 다른 인종적, 문화적 배경 때문에 동등하게 대우 받지 못하는 것 같다.	0.624	0.943
16) 체류 신분 때문에 불안정하다고 느낀다.	0.466	0.944
17) 이주자로서 직업을 갖는 것이 힘들다고 느낀다.	0.543	0.944
18) 내 아이에게 통역이나 번역을 부탁해야할 때 의존적이라고 느낀다.	0.676	0.942
19) 관공서나 은행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0.608	0.943
20)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이유로 아이의 학습이나 숙제를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다.	0.643	0.943
21)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없어서 좌절감을 느낀다.	0.661	0.942
22) 내 아이가 나를 부모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0.612	0.943
23) 의학적인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아플 때 의사를 만나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이 부담이 된다.	0.602	0.943
24) 내 아이가 자신의 친구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다.	0.570	0.943
25) 내 아이가 이주자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 하는 것 같다.	0.586	0.943
26) 내 아이가 차별을 겪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	0.523	0.944
27) 자녀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	0.540	0.944

※CITC = 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

※Cronbach's $\alpha = 0.945$

그러나 모형 적합도의 판정은 상대적인 진단(양정빈, 이종환, 2011)일 뿐 아니라, 표본의 크기나 측정변수의 수를 줄이는 등 적합도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에 치중하면 모형이 현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의 주목적이 적합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연구

〈표 7〉 이주자 부모스트레스의 요인구조 (27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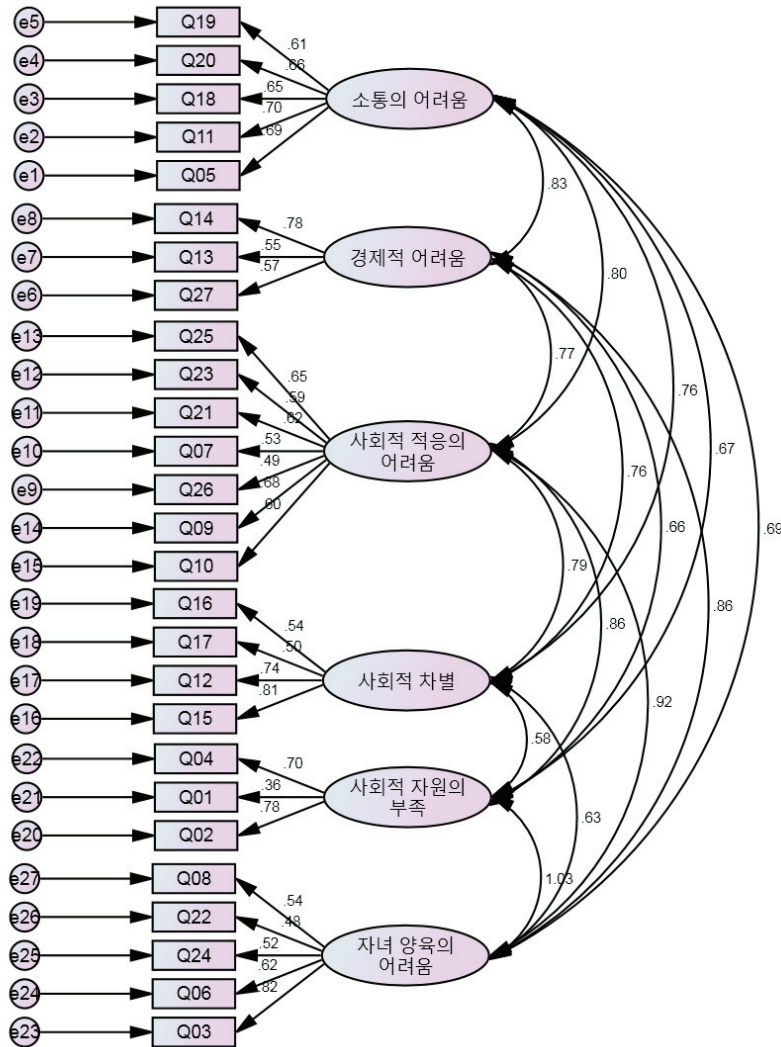
요인	문항	MSA	공통성	성분						
				1	2	3	4	5	6	
소통의 어려움	Q19)	0.885	0.771	0.861						
	Q20)	0.910	0.814	0.853						
	Q18)	0.915	0.789	0.766						
	Q11)	0.941	0.637	0.674						
	Q05)	0.895	0.698	0.661						
경제적 어려움	Q14)	0.883	0.739		0.829					
	Q13)	0.893	0.742		0.743					
	Q27)	0.910	0.655		0.740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	Q25)	0.899	0.761			0.836				
	Q23)	0.910	0.692			0.789				
	Q21)	0.896	0.782			0.789				
	Q07)	0.900	0.787			0.770				
	Q26)	0.881	0.777			0.735				
	Q09)	0.878	0.676			0.717				
사회적 차별	Q16)	0.813	0.733				0.773			
	Q17)	0.884	0.676				0.741			
	Q12)	0.905	0.587				0.704			
	Q15)	0.889	0.772				0.685			
사회적 자원의 부족	Q04)	0.913	0.732					0.746		
	Q01)	0.905	0.746					0.708		
	Q02)	0.892	0.699					0.609		
자녀 양육의 어려움	Q08)	0.856	0.794							0.882
	Q22)	0.913	0.812							0.829
	Q24)	0.869	0.695							0.792
	Q06)	0.927	0.645							0.714
	Q03)	0.936	0.660							0.669
고유값				12.613	1.818	1.556	1.316	1.098	1.050	
분산비				46.716	6.735	5.765	4.873	4.067	3.888	
누적분산비				46.716	53.451	59.216	64.088	68.155	72.043	
Approx. $\chi^2(p)$				2,085.987***(0.000)						
MSA				0.898						

※ Extraction Method: common factor analysis.

※ Rotation Method: Oblimin with Kaiser Normalization.

〈표 8〉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한 모형 적합도 지수

	$\chi^2(p)$	CMIN/DF	RMSEA	NFI	CFI	PNFI
모형적합도	610.889(0.000)	1.977	0.100	0.598	0.741	0.526
기준	0.05	3미만	0.05~0.08이하	0.90이상		높을수록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원모형

<표 9> 원모형의 잠재요인과 관측변수 간 경로의 유의성 검증

요인	문항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 오차	표준화 추정치	C.R.	비고
소통의 어려움	← Q05)	1.000		0.689		
	← Q11)	0.922	0.152	0.703	6.077***	
	← Q18)	0.860	0.152	0.650	5.667***	
	← Q20)	0.978	0.169	0.665	5.783***	
	← Q19)	0.910	0.169	0.613	5.375***	
경제적 어려움	← Q27)	1.000		0.574		
	← Q13)	0.871	0.200	0.554	4.354***	
	← Q14)	1.217	0.225	0.777	5.409***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	← Q10)	1.000		0.604		
	← Q09)	1.171	0.217	0.677	5.401***	
	← Q26)	0.969	0.232	0.488	4.177***	
	← Q07)	0.872	0.195	0.532	4.485***	
	← Q21)	0.983	0.195	0.618	5.048***	
	← Q23)	0.963	0.198	0.590	4.868***	
	← Q25)	1.079	0.205	0.655	5.272***	
사회적 차별	← Q15)	1.000		0.814		
	← Q12)	0.957	0.134	0.739	7.147***	
	← Q17)	0.643	0.136	0.501	4.713***	
	← Q16)	0.754	0.148	0.538	5.082***	
사회적 자원의 부족	← Q02)	1.000		0.784		
	← Q01)	0.442	0.129	0.358	3.422***	제거
	← Q04)	0.849	0.119	0.699	7.106***	
자녀 양육의 어려움	← Q03)	1.000		0.817		
	← Q06)	0.800	0.122	0.616	6.544***	
	← Q24)	0.534	0.099	0.523	5.389***	
	← Q22)	0.538	0.110	0.481	4.901***	
	← Q08)	0.608	0.108	0.545	5.648***	

*<0.1 **<0.5 ***<0.01

자의 모형 검증이기 때문이다(이학식, 임지훈, 2007).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은 적합도가 다소 낮으나, 인과구조 파악에 이용되는데 전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 및 <표 9>로 각 잠재요인과 관측변

수 간 경로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모든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재되어 있어 각 잠재요인의 관측변수들은 요인의 구성개념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0.40이상을 초과하는 요인적재치를 보였으나, ‘사회적 자원의 부족’의 ‘01)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한국어로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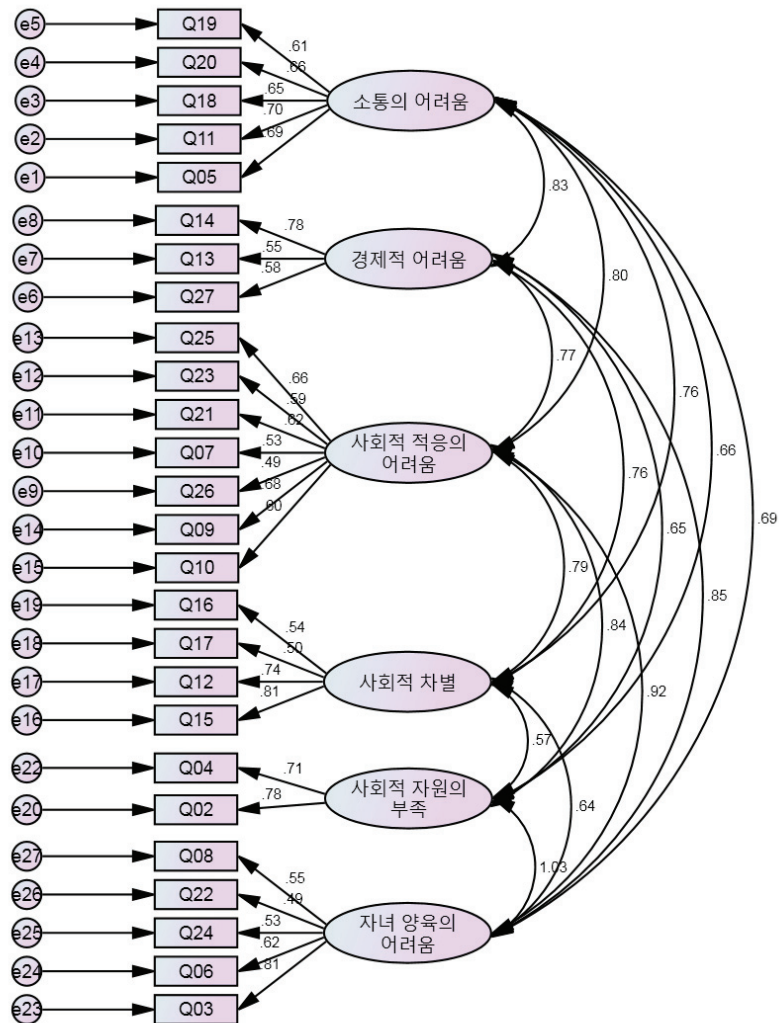
(표 10) 수정모형의 잠재요인과 관측변수 간 경로의 유의성 검증

요인	문항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 오차	표준화 추정치	C.R.	비고
소통의 어려움	← Q05)한국어가 서툴러서 아이와 깊이 있게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	1.000		0.690		
	← Q11)내 자녀의 선생님이나 다른 부모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렵다.	0.924	0.152	0.705	6.087	
	← Q18)내 아이에게 통역이나 번역을 부탁해야할 때 의존적이라고 느낀다.	0.858	0.152	0.649	5.656	
	← Q20)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이유로 아이의 학습이나 숙제를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다.	0.977	0.169	0.665	5.781	
	← Q19)관공서나 은행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0.909	0.169	0.612	5.369	
경제적 어려움	← Q27)자녀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	1.000		0.579		
	← Q13)고국에서 가졌던 사회적 위치가 한국에 오면서 낮아졌다고 느낀다.	0.857	0.197	0.550	4.340	
	← Q14)열심히 일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항상 어렵다.	1.214	0.223	0.781	5.450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	← Q10)타국에서 사는 삶 때문에 외롭고 고립되었다고 느낀다.	1.000		0.603		
	← Q09)내 아이와 문제가 있을 때 어디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	0.970	0.233	0.488	4.169	
	← Q26)내 아이가 차별을 겪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	0.869	0.195	0.529	4.461	
	← Q07)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녀양육이나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0.986	0.195	0.619	5.046	
	← Q21)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없어서 좌절감을 느낀다.	0.966	0.199	0.590	4.866	
	← Q23)의학적인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아플 때 의사를 만나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이 부담이 된다.	1.084	0.206	0.656	5.275	
	← Q25) 내 아이가 이주자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 하는 것 같다.	1.174	0.218	0.677	5.395	
사회적 차별	← Q15)다른 인종적, 문화적 배경 때문에 동등하게 대우 받지 못하는 것 같다.	1.000		0.814		
	← Q12)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한다.	0.956	0.134	0.738	7.140	
	← Q17)이주자로서 직업을 갖는 것이 힘들다고 느낀다.	0.643	0.136	0.502	4.717	
	← Q16)체류 신분 때문에 불안정하다고 느낀다.	0.754	0.148	0.538	5.085	
사회적 자원의 부족	← Q02)부모님이나 친척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아이를 기르는 것이 어렵다.	1.000		0.781		
	← Q04)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이나 기술을 한국에서 사용할 수 없어서 좌절감을 느낀다.	0.859	0.121	0.705	7.113	
자녀 양육의 어려움	← Q03)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부모역할에 대한 생각과 한국에서의 부모역할이 서로 달라 혼란스럽다.	1.000		0.810		
	← Q06)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이 없다.	0.808	0.124	0.617	6.529	
	← Q24)내 아이가 자신의 친구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다.	0.549	0.100	0.533	5.488	
	← Q22)내 아이가 나를 부모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0.548	0.111	0.486	4.942	
	← Q08)내 아이가 나를 부모로서 존경하지 않는 것 같다.	0.615	0.109	0.547	5.659	

*<0.1 **<0.5 ***<0.01

〈표 11〉 각 모형의 적합도 비교

	$\chi^2(p)$	CMIN/DF	RMSEA	NFI	CFI	PNFI
원모형	610.889(0.000)	1.977	0.100	0.598	0.741	0.526
수정모형	571.208(0.000)	2.011	0.102	0.611	0.749	0.534
χ^2 변화량	39.681(0.000)	0.034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수정모형

표현하지 못할 때 답답함을 느낀다($\lambda=0.342$, $p < 0.01$)는 낮은 요인적재치를 보이므로 해당 항목은 각 잠재요인에서 구성개념 타당도가 부족한 항목이므로 제외하였다.

요인적재치(λ)가 낮은 ‘사회적 자원의 부족’의 ‘01)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한국어로 잘 표현하지 못할 때 답답함을 느낀다’가 제거됨에 따라 원모형과 수정모형 간의 모형적합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Bentler와 Bonett(1980)에 의하면 χ^2 의 변화정도가 자유도의 변화정도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한다면 두 모형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원모형과 수정모형 간의 χ^2 변화량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였고, 이에 따라 두 모형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원모형에 비해 수정모형에서 모형 적합도가 높아졌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자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동안 이주자의 스트레스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살펴보면 주로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주자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의 경우에도 여성결혼이민자로 그 대상을 한정하거나 문화적응 스트레스나 양육 스트레스와 같이 특정 영역의 스트레스만을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한국 거주 이주한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주자 부모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이주자 부모 스트레스 척도는 26문항으로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인1은 ‘소통의 어려움’, 요인

2는 ‘경제적 어려움’, 요인3은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 요인4는 ‘사회적 차별’, 요인5는 ‘사회적 자원의 부족’, 요인6은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본 연구자가 복미의 이주자 부모를 위해 개발한 Immigrant Parental Stress Inventory(Yoo & Vonk, 2012)와 비교할 때 그 하위요인이 보다 세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IPSI의 경우 이주자 생활 스트레스(Immigrant Life Stress)와 부모-자녀간 문화적응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Parent-Child Acculturative Gap Stress)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나 한국 거주 이주자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된 이주자 부모 스트레스의 경우 총 6개의 하위요인으로 ‘이주자 생활 스트레스’요인이 ‘소통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 ‘사회적 차별’, ‘사회적 자원의 부족’ 5개 요인으로 세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에서 박민희와 양숙자(2012)에 의해 개발된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측정도구와 비교할 때도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예를 들면 박민희와 양숙자(2012)의 척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 양육 및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이주자 부모스트레스 척도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박민희와 양숙자(2012)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측정도구에서 ‘정서적 스트레스’, ‘문화적 스트레스’라는 개념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이주자 부모 스트레스 척도의 경우 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 사회적 자원의 부족과 같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이주자 부모의 스트레스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즉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이주자 부모 스트레스 척도의 경우 기존에 개발된 척도의 하위개념들을 포함하면서도 그 하위개념이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인 여성이주자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남성이주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문항이

구성되었으며, 결혼이주 뿐만 아니라 노동이주나 교육이주 등 다양한 이유로 이주한 부모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신뢰도 검사 결과 매우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으며, 구성타당도 또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국내 거주 이주자 부모 스트레스 척도로서 폭넓게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이주자 부모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한국 거주 이주자 부모가 경험하는 부모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이주자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먼저, 학문적 기대효과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이주자 부모 스트레스에 관한 지식을 확대하고 이주자 부모에 대한 다양한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자 부모스트레스와 관련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실증 연구에도 폭넓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주자 부모를 지원하는 서비스기관에서 이주자 부모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지를 사정하는 도구로서, 이주자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도구로서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한국적 맥락에 기초한 문화적으로 민감한 측정도구의 개발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주 경험이 없는 주류집단의 부모나 해외 다른 지역의 이주자 부모가 경험하는 부모 스트레스와는 그 맥락이 다른 한국 거주 이주자 부모 스트레스를 연구하여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개인, 서비스기관 차원의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대효과는 이주자 부모로서의 다양한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주자로서, 부모로서의 경험은 부모가 놓여 있는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정도구와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주자 부모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이주자 부모에게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본 연구가 비확률적 편의 표집에 의해 조사되었고, 조사 지역이 서울, 경기, 강원이라는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본 척도의 타당도와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수를 확대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지속적으로 척도를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주자 부모 스트레스와 관련된 다른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것 또한 척도의 타당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이주자 부모 스트레스 척도의 경우 스트레스 평가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스트레스원(stressor), 스트레스 반응, 스트레스 대처 중에 스트레스원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트레스원에 대한 신체, 정서, 행동, 인지적 반응 중에서도 특히 정서와 인지적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을 체류하여 한국어가 어느 정도 가능한 이주자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이주자 부모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자신의 인지적, 정서적 반응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신체적, 행동적 반응을 추가하여 문항을 구성한다면 이주자 부모의 스트레스를 파악하는데 보다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부정적 스트레스원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뿐만 아니라 긍정적 스트레스원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관

련된 문항을 추가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척도의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강현숙(2009). 북한이탈모의 초등학생 자녀 양육 경험 연구. 한국교육, 36(2), 93-112.
- 2) 김승권 · 김유경 · 조애저 · 김혜련 · 이해경 · 설동훈 · 정기선 · 심인선(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 김승희(2011).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문제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4), 17-33.
- 4) 노형진(2005). Excel 및 SPSS를 활용한 다변량분석 이론과 실제, 서울: 형설출판사.
- 5) 박민희 · 양숙자(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6(3), 518-531.
- 6) 박지명 · 이상균(2013). 다문화가족의 양육스트레스와 성인역할모델이 아동의 긍정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문화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5, 395-420.
- 7) 법무부(2014).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4.10.
- 8) 손의성(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8(단일호), 169-199.
- 9) 송미경 · 지승희 · 조은경 · 임영선(2008).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97-517.
- 10) 안형진(2008). SPSS/Missing Values를 이용한 결측자료 분석, 2008년 9월 24일 SPSS 15th Open House 자료집.
- 11) 양승민 · 연문희(2009).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943-966.
- 12) 양정빈 · 이종환(2011). 지역사회 성인중도장애인의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재활동기 간의 인과관계 모형분석, 보건사회연구, 31(3), 223-250.
- 13) 윤명숙 · 이해경(2011).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부모 됨을 통한 적응 경험. 한국가족복지학, 32(단일호), 103-135.
- 14) 이영준(2002). 요인분석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석경.
- 15) 이인선(2004).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이종환(2014). SPSS를 이용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의 이해와 적용(제3판). 경기: 공동체.
- 17) 이지영(2012).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기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7(2), 105-125.
- 18) 이학식 · 임지훈(2007).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6.0. 서울: 법문사.
- 19) 한인영(2001).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사회사업, 11, 78-94.
- 20) 허명희(2009). SPSS 시계열 분석과 결측값 분석. 서울: SPSS.
- 21) 현경자 · 김연수(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적응측정도구 개발연구. 보건사회연구, 31(4), 63-100.
- 22)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23) Aroian, K. J., Norris, A. E., Tran, T. V., & Schappler-Morris, N. (1998).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demands of immigration Scale. Journal of Nursing

- Measurement, 6(2), 175-194.
- 24) Bentler, P. M. & Bonnet, D. G.(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pp.588-606.
- 25)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34.
- 26) Berry, J. W. (2001). A psychology of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615-631.
- 27)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6), 697-712.
- 28)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491-511.
- 29) Berry, J. W., Phinney, J. S., Sam, D. L., & Vedder, P. (2006). *Immigrant youth in cultural transi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30) Cavazos-Rehg, P. A., Zayas, L. H., Walker, M. S., & Fisher, E. B. (2006). Evaluating an Abbreviated version of the Hispanic Stress Inventory for immigra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8(4), 498-515.
- 31) Cervantes, R. C., Padilla, A. M., & Salgado de Snyder, N. (1990).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Hispanic Stress Inventory.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12(1), 76-82.
- 32) Dinh, K. T., & Nguyen, H. H. (2006).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variables on Asian American parent-child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3(3), 407-426.
- 33) Hayashino, D. S. (2003) A Construct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Study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for Southeast Asian Immigrant and Refugee Par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regon, Oregon.
- 34) Hovey, J. D., & Magana, C. G.(2002). Cognitive affective and physiological expressions of anxiety symptomatology among Mexican migrant farmworkers: predictors and generational difference,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8(2), 223-237.
- 35) Kessler, R. C., Mickelson, K. D., & Williams, D. R. (1999). The prevalence, distribution, and mental health correlate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 208-230.
- 36) Lee, R. M. (2003). Do ethnic identity and other-group orientation protect against discrimination for Asian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2), 133-141.
- 37) Levitt, M. J., Lane, J. D., & Levitt, J. (2005). Immigration stress,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in the first postmigration year: An intergenerational analysis.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2(4), 159-177.
- 38) Liebkind, K. (1996). Acculturation and stress. Vietnamese refugees in Finland.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7(2), 161-180.
- 39) Liebkind, K., & Jasinskaja-Lahti, I. (2000). The influence of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on psychological stress: A comparison of seven immigrant group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0(1), 1-16.
- 40) Little, R. J. A. & Rubin, D. B.(2002), *Statistical Analysis with Missing Data* (2th ed.),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41) McCubbin, H., & Patterson, J. (1983). Stress:

- The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In E. Filsinger (Eds.), *Marriage and family assessments: A source book for family therapy*. Beverly Hills, CA: Sage.
- 42) Moradi, B., & Risco, C. (2006). Perceived discrimination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of Latina/o American pers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4), 411-421.
- 43) Rubin, A. & Babbie, E. R. (2008),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6th ed.), Brooks/Cole Cengage Learning.
- 44) Sandhu, D. S., &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 45) Tseng, V., & Fuglini, A. J. (2000). Parent-adolescent language use and relationships among immigrant families with East Asian, Filipino, and Latin American backgroun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465-477.
- 46) Ying, Y., & Tracy, L. C. (2004).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intergenerational congruence in immigrant families-parent scale in Chinese Americans. *Social Work Research*, 28(1), 56-62.
- 47) Yoo, S.-Y. & Vonk, M. E. (2012). Th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Immigrant Parental Stress Inventory (IPSI) in a sample of Korean immigrant pare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5), 989-998.

- 투 고 일 : 2014년 12월 31일
- 심 사 일 : 2015년 1월 26일
- 심사완료일 : 2015년 1월 29일